



# 혁신 Newspaper



발행처 : 항공교통센터 /우) 400-650 인천 중구 운서 인천공항우체국 사-26호 /전화 032-880-0224 /전송 032-889-2376 /http://acc.moct.go.kr



## 혁신탐사

### 한국 정부혁신 성과 국제무대에서 인정

- 오스트리아 제7차 정부혁신세계포럼 법무부 'KISS' 유엔공공행정상 -



'제7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서 2007년도 UN공공행정상 수상이 끝난 후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하인즈 피셔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는 모습.

**한**국의 정부혁신 성과가 국제무대에서 인정 받고 있다. 오는 6월 26일부터 4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제7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서 26일(현지시간) 법무부 '출입국 심사 서비스(KISS)'가 UN 공공행정상을 받았다.

UN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으로, 2003년 조달청의 '나라장터', 2006년 행자부의 '정부혁신 지수(GII)'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수상이다.

정부혁신세계포럼은 UN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혁신 컨퍼런스 로, 1999년 미국 워싱턴을 시작으로 2005년 제6차 서울 대회를 거쳐 이번이 7차다.

이번 포럼에서 정부대표단 단장을 맡은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은 "이번 7차 포럼에서 대한민국 정부혁신 그간의 성과와 우수사례·경험 등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고, 포럼 참가국가와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정부가 명실상부하게 혁신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혁신리더로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부각시킬 계획"이라며 포럼의 참여 의의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신뢰구축장관회의에 참석, '한국의 정부혁신,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그간의 혁신성과와 사례를 발표하고, 국가혁신으로 이어지는 정부혁신의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남아공, 이집트, 오스트리아 혁신장관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정부혁신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적 혁신전문가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데이비드 오스본(David Osborne)과 정부혁신 발전 방향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혁신의 길'(1992)과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1998)을 펴낸 바 있는 오스본은 "90년대 내가 주창한 정부혁신의 성과가 한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가 주관하는 정부지식관리 워크숍에서는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부부문의 지식 관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세계 알리고, '온-나라 BPS'를 기반으로 지식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전세계 100여개국에서 전·현직 국가원수(13명), 장관급 인사(60여명), 학계·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00여명이 참석하며, 우리나라는 정부대표단뿐만 아니라, 학계·시민사회단체·문화계의 인사 등도 함께 참여해 혁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혁신선도국가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항공소식

### 항공정비사 자격관리에 대한 항공사 책임성 제고

-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금**년 하반기부터 항공정비사에 대한 자격평가 등에 항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항공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항공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항공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6월 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항공기의 형식별로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함에 따라 항공사에서 정비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정비사가 정비할 수 있는 기종의 범위를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항공정비사의 자격평가 및 교육·훈련 등을 항공사의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신체검사의 주기를 자격증명의 종류와 나이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하여 이에 적합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종사자의 검사비용 및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가용조종사 : 현행 24개월→60개월, 관제사 : 현행 24개월→48개월

항공운송사업자 블랙리스트 제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최근 5년이내 발생한 사망사고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 결과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동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기능에 따라 안전이 미흡한 항공사가 자동 퇴출되도록 하였다.

항공관련 부대사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관할

지방항공청으로 이관함으로써 민원인이 건설교통부 과천청사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상업서류송달업 등

이 밖에 공항시설에서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공항개발사업의 승인서류 간소화 등 행정처분 및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캄보디아 항공기 사고 관련 외국항공사 특별 점검

**건**설교통부는 국내에 취항하는 7개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여름철 성수기 대비 외국항공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6월 12일 사고 위험도가 높은 항공사의 명단과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일명 : Safety AtoZ) 제도 시행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2건의 사망사고를 발생한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과 고장으로 인한 지연·결항률이 높은 상위 5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25일 캄보디아의 항공기 사고를 계기로 PMT항공을 추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시, 해당 항공사에 안전개선을 지시하고 해당 정부에 감독강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 항공화물 물류정보 빨라진다

- One-Site, One-Stop, 항공물류정보시스템 7월 1일 오픈 -

**건**설교통부는 항공물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One-Site, One-Stop 개념의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 Air Cargo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을 완료하고 '07. 7. 1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AIRCIS는 항공물류주체(운송사, 항공사, 포워더 등)들이 각기 소관업무별로 항공물류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시간 화물추적 및 물류정보 수집을 위하여 여러 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공물류주체들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항공물류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단일 사이트(Single Window)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항공물동량은 수출입물동량의 0.2%에 불과하나 금액으로는 전체의 27%('06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6.6%씩 증가('03~'06)하고 있다.

AIRCIS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최신 항공기 운항 스케줄과 실시간 출/도착 상황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여러 항공사의 화물예약을 단일창에서 수행이 가능하며 육상·통관·항공 등 단계별로 화물이동을 추적하여 Door-to-Door Visibility를 향상하고 전체적인 화물흐름을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할 수 있게 해주며, 각 항공사의 장치장에 보관된 화물의 창고보관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할 수 있으며, 항공대리점의 운송장 정보(Master Air Way Bill No)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고, 미국·캐나다 등 외국세관에 적하목록 사전신고를 하고 접수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통계관리, 물류흐름 관리 등 물류기업별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정부·기업 등 모든 물류주체에게 항공물류관련 뉴스, 시장동향, 법제도 등 물류 정책 및 정보 지식창고 기능을 하게 된다.

AIRCIS가 구축·운영됨으로써 항공물류정보 서비스 혁신을 통해 항공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사·조업사·포워더(복합운송주선업체)·운송사 등 물류주체간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동안 단절되었던 항공물류정보를 공유·교환하는 협업(協業)의 장을 제공하고, 단일창에서 화물예약·추적, 화물창고보관료 온라인 결제, 항공운송장 관리 등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2010년 이후는 연간 100억원이상의 물류비가 절감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동 시스템은 앞으로도 물류기업의 연계확대 등

서비스영역의 다각화 및 활성화 등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2년까지 항공화물의 전구간 위치추적(Door-to-Door)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CCS(Cargo Community System) 정보망과도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Global 물류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동 시스템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맡아 운영하게 되며, AIRCIS를 브랜드화하고 세계적인 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 항공영어구술능력 시험결과

**조** 종사와 관제사(통신사)간 영어 의사소통시 항공통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항공영어구술능력 시험이 지난 6월 4일, 5일 항공교통센터에서 실시되었다.

이번에 응시한 총인원은 104명이 응시하였으며, 시험결과,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4등급 이상이 47명(45%)으로 평가 되었다.

항공교통센터에서는 응시인원 59명중 29명이 4등급을 취득(합격률 49%)하였으며, 서울지방항공청은 45명중 18명이 4등급을 취득(합격률 40%)하였다. 항공교통센터의 현재까지 4등급 확보인원(국제관제사 120명 대상중)은 75명으로, 현재 63%의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목표율인 70%(84명)에는 9명을 추가 확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교통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가결과를 모니터하고 영어교육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한 운항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항공교통센터, 6월중 혁신우수사례

**건** 교부(혁신팀)가 지난 6월중 혁신포털에 등재된 혁신활동(347건) 모니터링 결과, 우리센터가 혁신포털에 등재한 “사무실 공간내 갤러리(Art at Work) 프로그램 운영(6.1)” 및 “항로관제시스템 「비상복구프로그램」 자체 개발·운영(6.5)”에 대한 혁신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혁신점수를

각 5점씩을 부여받았다.

혁신문화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번 “사무실 공간내 갤러리(Art at Work)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즐거운 일터 만들기를 위해 직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사무공간내 전시하여 아름다운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선정된 우수사례이다.



혁신성과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항로관제시스템 「비상 복구프로그램」 자체 개발·운영” 사례는 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 장애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안정적 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 문제 해결팀을 운영, 복구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우수사례이다.



### 제9회 항공안전세미나 개최

**건** 교부 항공안전본부가 주관하고 한국항공진흥협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공동 주최하는 제9회 항공안전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항공분야 종사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 ♣ 일 시 : '07. 7. 6 (금), 09:30-16:00
- ♣ 장 소 : 김포공항스카이스티 컨벤션센터(동관)
- ♣ 주 관 : 항공안전본부
- ♣ 주 최 : 항공진흥협회·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 ♣ 주 제 : 항공기 안전운항 및 관제업무 개선
- ♣ 대 상 : 정부·학계·연구소·항공사 운항·안전담당자

※ 당일 참석자들에게 점심 제공·기념품 증정 예정

# Hello English

## ♣ 항공영어 구술능력 시험 대비 요령(6)

### Task 8. Handling a System Malfunction

- ◆ 위기 상황이라 해도 문제는행으로 문제가 공개되는 만큼 모두 검토한다.
- ◆ 특히 자신이 없거나 해결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답안을 미리 준비해 둔다.
- ◆ 문제에 맞지 않는 답변은 이해력 점수를 낮추게 되므로 문제를 잘 듣고 이해한다.
- ◆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나타내야 하며 머뭇거림 없이 설명하여 유창성을 높인다.
- ◆ 답변시 상황에 대한 언급과 자신의 해결방법을 논리적으로 연관지어서 표현한다.
- ◆ 자신의 답변을 소리내어 읽고 녹음한다. 이때 발음과 억양을 확인하고 교정한다.

### ① 예제문 ①

Directions: Listen to the following situation, and explain how you would resolve the situation. You have 30 seconds to prepare your answer, and 1 ½ minutes to respond.

You are the tower controller on a late afternoon shift duty. Suddenly, runway lights become defective for unknown reasons. Now one airplane requests to land at the airport.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Now, think about your answer.

### ① 답변 ①

First, I would inform the pilot about the situation and ask about his intentions. If the pilot feels that visibility is good enough to land, then I will give him permission to

land. If the pilot cannot see the runway, I will tell him to hold his position until the problem is fixed. Then, I will report the situation to my superior and request for an immediate restoration of the runway lights. Finally, I will announce the situation to all departing and arriving aircraft to make sure they are aware of the problem and to give assistance as needed.



## 혁신으로 가는길

### 넥타이를 풀어라

- 권위의 상징 타이폴면 두뇌회전 15% 높아져 -

◆ '쿨비즈+크리에이티브' 효과 일석이조

**넥**타이를 풀면 체감온도가 2도 내려간다.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만으로도 에어컨 전기를 연간 954억원 아낄 수 있다. 때 이른 무더위 속에 관공서와 기업 등에서 '쿨비즈(Cool Biz) 운동'이 한창이다.

하지만 쿨비즈 운동만으로 쿨하지 못한 직장 분위기가 시원해질 리 없다. 넥타이를 풀게 한 건 더운 날씨가 아니었다. 넥타이에 묶인 목을 해방시키자 크리에이티브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들의 노타이 문화는 단순한 냉방비 몇 푼 절약만으로는 따질 수 없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

▲ 넥타이, 획일성의 상징=샐러리맨은 '넥타이 부대'라는 말처럼 넥타이는 직장인의 상징이다.

넥타이는 한 조각의 천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간단치 않다. 모두가 똑같은 것을 매고 있다는 획일성, 여성성이 결여된 남성 중심의 문화, 그리고 상명하복식의 권위적인 문화의 상징이다.

패션 소품이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장식이 아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목에 넥타이를 매야만 한다. 넥타이는 곧 개성을 잃고 똑같은 조직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해철 시인이 '넥타이'란 시에서 '이렇게도 인생을 묶으며 살아 왔다'라고 읊조릴 때 넥타이는 획일화, 이에 따른 창의성 상실, 구속의 상징이 된다.

기업도 권위 파괴를 위해 넥타이를 버리는 파격을 시작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이 성장의 엔진이라고 판단한 기업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서라면 버리지 못할 것이 없었다. 그 첫걸음이 넥타이다.

◆ 광고·IT업계서 대기업으로 확산

노타이는 권위적이고, 획일적이며, 남성적인 기존의 기업문화를 버리는 상징적 행위다. 이것은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광고업계, IT업계, 외국계 기업에서 시작돼 대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가 핵심인 광고회사들은 노타이가 대세다.

국내 1위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은 삼성의 관료적 냄새를 희석하기 위해 넥타이를 버렸다. 제일기획은 회의 때 넥타이도 매지 않고, 호칭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회의 이름도 '노노 미팅(NONO-meeting)'이다. 대홍기획과 오리콤도 넥타이를 매지 않은 지 오래다.

대홍기획의 한 관계자는 "롯데 본사에서 쿨비즈 운동의 일환이라며 공문이 내려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타이 차림이었다. 이미 버린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 목의 해방은 창의성의 회복=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 씨는 선배 예술가의 넥타이를 잘라버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파격을 불러일으켰다. 생전의 백씨 모습.

놀이터 같은 회사를 표방하는 SK커뮤니케이션스도 수평적·창의적 기업문화를 위해 넥타이를 버린 조직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관계자는 "노타이 차림인 CEO와 회의를 하다 보면 회사보다는 동아리에 있는 것 같아 친근감이 든다"고 말했다.

코오롱그룹은 2000년 11월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자율복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웅열 회장은 사내 강연을 통해 "넥타이를 매면 산소호흡량이 7% 감소, 두뇌 회전이 15%까지 떨어진다. 창의적인

사고 증진과 효율적인 팀워크 경영을 위한 형식 파괴의 하나로 전격적인 자율복장제를 실시한다”고 선언하면서 이뤄졌다.

노타이를 표방한 SK텔레콤은 대리나 과장 등 직급을 없애고 매니저로 통일, 빠른 의사소통과 창의를 앞세우는 수평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롯데도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노타이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달 노타이 쿨비즈 패션모델로 직접 나서기도 했던 이철우 롯데백화점 사장은 “기존의 정형화된 정장 스타일도 좋지만 넥타이를 풀면 사고의 유연성도 키울 수 있고, 창의력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은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넥타이는 과거의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문화의 상징이었다”며 “자유화, 민주화라는 바람이 기업에도 불기 시작하면서 큰 틀에서는 ‘풀자’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그러나 “넥타이 자체가 꼭 개인의 자유, 창의성과 필연적으로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넥타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표현하는 개성의 도구로 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자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항공교통센터에서는 혁신분위기 확산, 혁신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창의적인 혁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혁신 NEWS PAPER』를 발간·배포하고 있사오니, 각 기관 또는 개인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활동을 게재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혁신NEWS PAPER 발간 및 배포안내

- 발 간 : 주 1회(매주 화요일)
- 배 포 : CTNET, 우리센터 게시판, 구독자 전자우편 등
- 편집부 : 항공교통센터 공역과 (편집장 : 장재수)
- 전 화 : 032-880-0224 팩스 : 032-889-2376 E-mail : atcchang@moct.go.kr

※ 본 지의 내용은 우리 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닐 수 있습니다